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901호(한덕빌딩), 전화: 3472-2711, 팩스: 3472-2713

시행일자 : 2022. 8. 4.

문서번호 : 파바공동행동 2208-1

수 신 : 대통령

참 조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 신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연락담당자 :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 010-9033-4556)

제 목 : SPC파리바게뜨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시정 조치 요청 진정서 제출

1.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희망합니다.
2.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은 SPC파리바게뜨(그룹 회장 허영인)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2018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점심시간 및 휴가권 미보장, 건강권과 모성권 침해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출범해 현재 전국의 6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공동행동은 SPC파리바게뜨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SPC파리바게뜨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권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진정에 대한 성실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끝)

첨부 : 진정서

# 진정서

대통령 귀하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샤니·SPC삼립 같은 제빵제과 유명브랜드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국내 1위 식품업체 그룹사입니다. 총수인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 2030년 매출 20조원을 목표로 삼고 있을 만큼 제빵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SPC그룹은 경영방침으로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도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그룹의 계열사에 속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SPC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5년째 거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SPC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민주노총 소속) 지회장이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을 바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식농성에 들어가 53일간의 단식을 해야 했고, 단식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가 노조와의 대화마저 중단해, 대화 중단한 달 보름 후인 지난 7월 4일 이번에는 파리바게뜨 지회간부 5명이 집단단식에 들어가 무더위 속에서도 1인(최유경 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의사의 강력한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32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SPC그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SPC (주)파리크라상의 자회사인 파리바게뜨[정확히는 (주)피비파트너즈]에서 지난해 3월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0%”를 목표로 삼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승진차별 등 불이익을 줘 지회에서 탈퇴시키고 회사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특정노조(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로의 가입을 강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비파트너즈에 대해 지회 조합원 승진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급승진자 956명 중 피비파트너즈노조 소속 직원은 814명이 포함된 반면 지회 소속 직원은 21명만이 승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조 소속 직원은 승진 대상자 중 30%, 지회 소속 직원은 6%만 승진한 것으로 노조 소속 직원을 지회 소속 직원에 비해 5배나 많이 승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달 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피비파트너즈 전국 8개의 사업본부 중 6개 사업본부 본부장에 대해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본부장 바로 밑의 관리자인 제조장 3명에 대해 노조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PC그룹에서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곳은 파리바게뜨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던킨도너츠를 생산하는 비알코리아(주)에 대해서도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PC그룹의 불법경영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6월 27일 이정미 당시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 및 카페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전산 축소조작으로 임금깎기”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위 폭로사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포함한 5,378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전산조작으로 떼어먹은 연장근로수당 등 11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SPC는 불법파견을 부인한 채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고용 대신 불법파견업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합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서’와 합자회사로의 ‘전적동의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PC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불응에 대해 1차로 162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2018년 1월 11일 SPC (주)파리크라상은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 직원들을 모두 고용하고, 급여를 3년 내에 본사(파리크라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며, 협력업체에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불법파견에 대한 수백억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SPC (주)파리크라상은 과태료 부과 유예 혜택을 누린 반면 급여와 후생

복리를 본사 직원들과 동일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한다는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피비파트너즈 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시간을 다시 축소·조작해 임금깎기를 해 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파리크라상 대표이사 겸임)의 지시로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민주노총 조합원 0%를 목표로 한 지회 파괴 공작이 조직적으로 전개됐음이 중간관리자와 제빵기사들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피비파트너즈 사업본부장들은 중간관리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지회 탈퇴 성과를 올린 관리자를 치하하며 지회 탈퇴 1인당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회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실적을 관리하고, 현장 관리업무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지회 조합원들을 찾아가 탈퇴 실적을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자가 지회 조합원들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대표이사는 매일 노조 가입 현황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740여명을 유지하던 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4개월 만에 매달 100여명씩 탈퇴해 340여명으로 곤두박질쳤고 그 이후에는 아예 지회 조합원을 괴롭혀서 퇴사시키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현재 200여명만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피비파트너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자 전산을 조작해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가 하면, 실태조사 결과 점심시간은 물론 연차 및 생리휴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하고, 임신부에게 금지하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야간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자유로운 태아검진 등 모성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들의 유산율이 여성 직장인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SPC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점심시간, 휴가 및 모성권 보장 등)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정치적 모토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든 사든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PC그룹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맺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합의의 주체인 파riba게뜨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회 탈퇴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차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깨끗한 매장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도 휴가권도 모성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용인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공동행동은 SPC파riba게뜨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 행위, 그리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진정하니 정부의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파riba게뜨 상황 개요
  2. 파riba게뜨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이행 여부
  3. 개별교섭 요구 취지와 배경

2022. 8. 4.

**파riba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직인생략]**